

동해해수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강원해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대설, 한파, 풍랑 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연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겨울철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 중앙해심 통계: 최근 5년 강원지역 인명피해 152명 중 겨울철이 59명, 약 28%로 최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제여객선 화재 발생 대응을 위한 관내 소방·구조기관 합동 소화·구조 훈련 실시, 위험물 운반선 승선 선원의 업무 숙련도 확인과 항해장비, 주기관, 화물창, 하역설비 점검 계획 등이 포함되어있다.

동해해수청은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주)대한송유관공사 영동지사 외 2개) 자체 안전관리계획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육·해상 항로표지시설 (181기) 점검과 항만·어항시설 손상·균열 등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내항선·어선에 승선중인 선원들에게 음주 운항 금지, 선박 통항방법 및 안전사고 사례 교육 실시, 국제여객선 터미널 여객 대상 안전설비 사용법 안내, 여객 안전수칙 준수 현장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철락 (033-520-6141)
		담당자	주무관	고규성 (033-520-6147)